

# 의대 막히고 반도체 뜨고... 영재학교 지원 지형 '흔들'

전국 8개 영재학교 789명 선발  
지역선발 370명, 전체 46.9%  
지역의사제·계약학과 선호 맞물려

〈2027학년도 영재학교 지역선발 배정규모〉 /종로학원

No	학교명	전국단위 선발		지역선발 배정 인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서울과학고	38	31.7%	82	68.3%	120	100.0%
2	경기과학고	73	60.8%	47	39.2%	120	100.0%
3	한국과학영재학교	102	85.0%	18	15.0%	120	100.0%
4	광주과학고	26	28.9%	64	71.1%	90	100.0%
5	대구과학고	46	51.1%	44	48.9%	90	100.0%
6	대전과학고	56	62.2%	34	37.8%	90	100.0%
7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9	46.4%	45	53.6%	84	100.0%
8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39	52.0%	36	48.0%	75	100.0%
	합계	419	53.1%	370	46.9%	789	100.0%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가 혼합 국면에 들어섰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원감소 요인과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 확산으로 지원선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다. 여기에 2028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 수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까지 겹치며, 이공계 특화 교육을 받는 영재학교 출신의 입시 유리함과 지원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지역균형 선발이 강화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지역 선발로 배정하면서 특정 지역 쏠림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8개 영재학교 모집 정원을 살펴

보면, 정원 내 기준 총 789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은 419명(53.1%), 지역 선발은 370명(46.9%)으로 집계됐다. 지역 선발 인원은 서울 57명, 광주 53명, 경기 39명, 대구 32명, 인천 28명 순이다.

학교별로 보면 지역 선발 비중은 더 두드러진다. 서울과학고는 전체 120명 중 82명(68.3%), 광주과학고는 64명(71.1%)을 지역 선발로 운영하는 등 일

부 학교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이 중심 구조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이 85%로 가장 높아 학교별 선발 방식의 차이도 나타났다.

최근 경쟁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영재학교 경쟁률은 ▲2024학년도 5.86대1 ▲2025학년도 5.96대1 ▲2026학년도 5.72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학고 3.41대1, 자사고 1.22대1,

외고 1.47대1, 국제고 1.87대1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7학년도에는 지원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영재학교는 의대 지원 시 불이익이 적용되는 구조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대 진학에 적성이 맞지 않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로를 전환하면서 영재학교 지원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이 예정되면서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받은 영재학교 출신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지원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전체 경쟁률보다

는 학교별·지역별 지원 양상과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와 함께 의대와 공학계열 진로 선택이 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영재학교 지원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수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지원 감소와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입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5월 6일부터 시작해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울과학고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영재성 검사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고, 영재성 다면평가 캠프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8월 15일, 나머지 학교는 8월 8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8월 25일, 이외 학교는 8월 21일 발표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역세권 규제 완화 325곳으로 확대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 넓혀  
민간 참여 늘리고 지역개발 격차 해소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풀어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 지역까지 확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히고,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도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도심 일부에 집중됐던 역세권 개발 효과를 생활권 단위로 넓히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시 조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지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머물던 개발 한계를 넘어 보다 높은 밀도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68곳으로 확대된 서울시 대표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약 7만 8000㎡의 기반시설을 확보했으며, 미리 내집 879세대를 포함해 총 1만 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이현진 기자

##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세대당 10만원 지원

성남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 6일부터 ‘성남시 에너지 안심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에너지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총 420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6일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41만 218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세



대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계좌이체), 선불카드,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현금과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6월부터 6월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신청 후 최대 5일(근무일 기준)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 선불카드는 현장 접수 즉시 발급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발굴 돕는다

경상원과 박람회 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경쟁력 있는 소공인의 우수 제품 발굴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박람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의 판로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중

합 전시회인 ‘제29회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6)’와 북미 최대 소비재 전문 전시회 ‘ASD Market Week’ 등 국내·해외 2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80개사로, ▲국내 박람회(G-Fair Korea 2026) 참가 70개사 ▲해외 박람회(ASD Market Week) 참가 10개사를 각각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G-Fair Korea 2026’은 약 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 B2B 전시회로, 오



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상원은 참가기업에 부스 설치, 홍보물 제작, 온라인 기획전, 국내외 바이어 상담, 통·번역 등 전반적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5월 6일 (수)

음력 : 3월 20일

수도권 날씨

11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32 | 해질 / 19:26

연천 7/23, 동두천 9/23, 가평 6/24, 파주 7/22, 서울 11/23, 양평 8/25, 용인 11/23, 평택 8/24, 백령도 11/16, 인천 12/21, 수원 11/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동 긴장 다시 고조...美·이란 호르무즈 교전에 휴전 중대 고비

▲美 프리덤작전 첫날 한국에 불뚱...트럼프는 사과 대신 압박

/사진 뉴시스

▲이란 UAE 공격에 국제사회 자제 요청...“긴장 멈추고 대화해야”

▲외교부 “호르무즈 韓선박 화재 진압 완료...예인 후 원인 파악”

▲주북 러대사관, ‘김정은-푸틴 첫 회담 7주년’ 친선모임...북 외무성 참석

▲UAE “이란발 미사일 15발, 드론 4대 요격”...아이언돔도 나섰다